

박성현, 아칸소 챔피언십 우승

LPGA 시즌 2승 · 통산 7승...세계랭킹 1위 복귀



박성현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 컨트리클럽에서 막을 내린 미 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성현은 최종(3R) 합계 18언더파 195타로 우승하며 세계랭킹 1위에 복귀했고 뒤를 이어 김효주, 박인비가 1타 차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박성현(26)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총상금 200만달러)에서 우승했다. 박성현은 1일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 컨트리클럽(파71·6106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18언더파 195타를 친

박성현은 박인비(31)와 김효주(24) 등 공동 2위 그룹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3월 HSBC 월드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시즌 2승째이자 LPGA 통산 7승이다.

박성현은 우승 상금 30만달러(약 3억5000만원)를 받았고, 세계 랭킹 또한 2위에서 1위로 점프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날 우승 전까지 박성현은 랭킹 포인트 7.36으로 2위에 있었다. 1위 고진영(7.55점)에 불과 0.19포인트 뒤져있었다.

박성현은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박인비와 김효주가 6타를 줄이면서 17언더파로 경기를 마쳤다.

자칫 연장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박성현은 침착했다. 18번 홀(파 5)에서 이글 퍼트를 홀에 가깝게 발인 뒤 버디를 낚으면서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한편 재미동포 대니얼 강도 이날 타수를 크게 줄이면서 17언더파 196타로 공동 2위에 올랐다.

허미정은 15언더파 198타로 공동 6위, 양희영(30)과 신지은(27)은 14언더파로 공동 10위를 마크했다.

뉴시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 D-10

세계 5대 메가스�포츠 대회 중 하나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막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최 도시 광주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대회 슬로건인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 담겨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대회 개막을 앞두고 전반적인 준비상황과 경제적 파급효과, 주목해야 할 수영스타 등을 소개한다.

경제적 파급효과 · 레저시사업 기대

한국, 세계 4번째로 5대 메가스�포츠 모두 개최
고용창출 · 도시 브랜드 홍보 효과 등 상당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로 한국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4번째로 세계 5대 메가스�포츠를 모두 개최한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역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보다 참가국과 인원 면에서 최다를 기록해 또 하나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다.

1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193개국에서 7806명이 참가 등록을 마쳤다. 선수 2899명, 임원 1587명, 심판진 200명, 방송·미디어 1909명이 다.

역대 최대 참가국 대회는 지난 2015년 러시아 카잔대회로 184개국으로 광주대회가 9개국 더 많다. 선수권대회 종료 후 치러지는 마스터즈대회에도 최근까지 83개국 5500여 명이 참가 등록을 마쳤으며, 추가 등록까지 감안하면 참가 인원이 더 증가할 전망이다. '저비용·고효율'로 치르는 이번 대회의 총사업비는 2036억원으로 운영비가 1304억원, 시설비가 732억원을 차지한다.

대회 규모가 비슷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총사업비 3572억원 대비 57%에 불과한 예산이다.

하지만 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추산한 대회 생산유발 효과는 전국 2조

4000억원, 광주 1조4000억원이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전국이 1조 5000억, 광주가 6500억원에 달한다.

고용창출 효과도 광주가 1만 8000명, 전국적으로 2만4000명으로 분석됐다.

전 세계 방송과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대한민국과 광주의 브랜드 홍보 효과도 만만치 않다.

국제수영연맹(FINA) 대회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로마대회 방송가치는 약 14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 대회는 TV 방송 196개국·3509 시간과 뉴스 재활용 3000여 건(122시간), 미디어 토탈 누적 노출 수는 30억명을 기록했다.

2015년 러시아 카잔대회에는 TV방송 5728시간, 미디어 토탈 누적 노출 수 68억명을 육박했다.

대회 개최 후 레저시사업을 통한 수영 전문시설 건립도 빼놓을 수 없는 경제적 파급효과다.

광주시는 600억원을 들여 수영진흥센터와 야외수영장, 기념관 등을 건립한다. 수영전문시설이 들어서면 향후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선순환구조를 갖추게 된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세계 5대 메가스�포츠대회 중 하나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직접·간접 경제유발 효과가 상당하다"며 "무엇보다 대회 개최 후 레저시 사업을 통해 광주가 '수영도시'로 자리잡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류현진, 별종의 별 공인...한국인 최초 올스타전 선발 등판

4일 휴식 후 10일 올스타전

생애 첫 메이저리그 '별들의 축제'에 나서는 류현진(32·LA 다저스)이 올스타전 선발 등판의 영예까지 안았다.

미국 ESPN은 1일(한국시간) '네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이 올스타전에서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류현진은 이날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발표한 올스타전 내셔널리그 투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인 선수로는 박찬호(2001), 김병현(2002), 추신수(2018)에 이은 네 번째 올스타 선정이다.

선발 등판까지 사실상 확정됐다. 올해 올스타전에서 내셔널리그 지휘봉을 잡는 로버츠 감독은 현지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류현진의 올스타전 선발 등판 계획을 공개했다.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올스타전 선발 마운드에 오르는 건 처음이다.

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에 따르면 류현진은 "올스타전 선발 등판 기회를 얻게 된 건 믿을 수 없는 영

광"이라며 "얼마나 행복하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반기를 보냈다. 운이 따랐고, 동료들의 도움 덕분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현진은 올 시즌 16경기에서 9승패, 평균자책점 1.88을 기록하며 눈부신 성적을 냈다. 지난달 29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4이닝 7실점으로 무너졌지만, 여전히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를 지키고 있다. 등판 일정도 문제가 없다.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은 10일 클리블랜드

NL ALL-STAR ROSTER	
STARTERS	RESER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NOLAN ARENADO JAVIER BÁEZ KETEL MATE FREDDIE FREEMAN WILLSON CONTRERAS CODY BELLINGER CHRISTIAN YELICH RONALD ACUÑA JR. 	<ul style="list-style-type: none"> MIKE SOROKA WALKER BUEHLER CLAYTON KERSHAW JACOB DEGROM JOSH HADER PETE ALONSO J.T. REALMUTO JOSH BELL PAUL DEJONG
PITCH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UIS CASTILLO SANDY ALCANTARA KIRBY YATES WILL SMITH MAX SCHERZER HYUN-JIN RYU ZACK BRIN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THONY RENDON JEFF McNEIL YASMANI GRANDAL TREVOR STORY DAVID DAHL CHARLIE BLACKMON KRIS BRYANT MIKE MOUSTAKAS

의 홈 구장인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다.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 5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으로 예정돼 있는 류현진은 4일 휴식 후 올스타전 선발 마운드에 오르게 된다.

뉴시스

LG 김현수, 올스타 팬투표 1위 보인다

3주연속 최다득표 지커

LG 트윈스 김현수(31)가 KBO리그 올스타전 팬 투표에서 3주 연속 최다 득표를 지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올스타전 베스트 12 선정 팬 투표 3차 중간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10일 시작된 베스트 12 선정 팬 투표는 30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03만8019표를

기록했다. 투표수는 지난해 3차 중간 집계(71만883표) 대비 약 45.8% 포인트 증가했다.

나눔 올스타 외야수 부문 김현수는 49만5828표를 얻어 1, 2차 집계 이후 다시 한 번 팬 투표 1위에 도전한다.

드림 올스타 1루수 부문의 SK 와이번스 제이키 로맥은 48만8191표로 드림 올스타 1위, 전체 2위에 올랐다.

다. 48만8683표로 전체 득표수 3위를 유지하고 있는 나눔 올스타 중간 투수 부문 LG 정우영은 고졸 신인 투수 최초 베스트 12 선정이 유력해졌다.

전체 득표수 4위와 5위에는 각각 드림 올스타 선발투수 부문 SK 김광현(47만4963표), 3루수 부문 SK 최정(46만8673표)이 오르는 등 SK와 LG가 각각 7명씩 각 포지션에서 1위를 질주하고 있다.

가장 접전이 벌어진 드림 올스타 지명타자 부문은 SK 정희운이 33만675표로, 2위 두산 호세 페르네스(31만2076표)에 2만4683표 앞서고 있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창새미골, 회연사, 선진강, 운조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